

나주시 “나눔·생명·희망’숨은 의인을 찾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시민 추천 방식 공개모집 ... 12월 정례조회서 시상

강인규 시장 “지역사회 귀감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라”

나주시가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상인 ‘숨은 의인(義人)’을 찾아 나섰다. 나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주시민 교육 및 육성지원 사업의 일

환으로 오는 31일까지 시민 추천 방식의 ‘숨은 의인’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사회봉사와 인적·물질

선, 안전과 생명, 환경보호에 앞장서 온 ‘생명사랑’, 지역사회 화합과 응기를 불어넣는 ‘희망전파’ 등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실천하는 인물 또는 민간단체다.

대상자는 공고일(2020. 10. 12)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기관·직장인 또는 각종 민간단체로 추천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시청 총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 양식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1월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통

해 숨은 의인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12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례조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민주시민이요 의인”이라며 “나주시민의 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숨은 의인 발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산림자원 보호 자연재난 선제 대응 총력

화순군이 전체 면적 중 73.2%에 달하는 산림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자연재난, 산림보호를 위해 52억 원을 투입해 임도, 사방사업, 해충예방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재해 방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도·사방시설 구축,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림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보와 임도 유지·관리 강화, 사방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취약지역 복구와 정비를 통해 인적, 물질 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방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건조일수 증가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헬기 1대를 임차하고 산림과 인접한 사찰, 목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2곳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다양화된 산림 병해충에 조기 예찰·적기 방제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림 병해충 예방,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군은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설 유지와 보수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160명을 채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 지자체 첫 ‘과수 전정단’ 육성...3기생 모집

69세 이하 농업인 대상 총 40명 모집...30일 마감

장성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 중인 과수 전정(剪定·가지축기)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성군은 ‘3기 과수 전정전문가 양성교육’ 참여자 4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장성에 주소를 두고 감, 사과를 재배하는 만69세 이하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정은 상품성 높은 과일을 기르기

위해 과실수의 불필요한 가지를 솜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만 진행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농촌 지역이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난으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장성군은 지난해 자치단체 최초로 전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오는 2021년까지 전정전문가 100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적인 이론·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연간 20회 내외로 이뤄지는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합격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자는 전정기술지원단에 가입해 연간 20일씩 총 4년 간 전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현재 2기 교육생들이 중간평가를 거쳐 겨울 전정 이론·실습교육과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앞서 수료한 1기 전정단은 최근까지 9ha 규모의 전정 작업에 참여했다. 과수 전정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팀(061-390-8435-6)으로 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에서 전정전문가를 양성하면 원활한 필요인력 수급과 외부 유출비용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전정전문가 집중 육성을 통해 황금사과, 신품종 단감 등 과수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 본격화 주민설명회 갖고 당위성·중요성 설명 관심 당부



곡성군이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생태축(서식지) 복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곡성군은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곡성군은 참석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관심 등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곡성을 총의공원 일대에서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동악산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하늘다람쥐, 꼬마잠자리 등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 군은 사업을 통해 생태 통로, 생태숲, 생물 서식지 등을 복원 및 조성하게 된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수행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다. 도시생태축 사업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공모작을 평가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한 것이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귀촌인 위한 역량 강화 공동연수 20명 대상 성공적인 정착 위한 귀촌인 간 관계형성·교육

담양군이 21일부터 이틀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관내 거주 귀촌인 20명을 대상으로 ‘귀촌인 지도력 함양 및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이 좋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원이자, 지역을 이끄는 일꾼이 되어 지역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귀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수내용은 성공적인 귀촌을 위한 ‘즐거는 지도력 갖기’, 농촌에서 창업하

기 위한 성공노하우, 지역소통과 위기극복 능력 키우기, 부드러운 소통으로 다가가는 생활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고장으로 담양군을 선택한 귀촌인이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귀농귀촌 홈페이지(www.refarmdamyang.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예방과 진화활동 등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임도관리원, 도유림순산원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산림 보호 지원단도 운영한다. 지원단은 인삼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의 소중함을 알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군은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림재해 방지대책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